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요소 분석†

The Analysis of the Elements for the Lively Use of Activity Areas in the Elderly Nursing Facilities

이민아*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 및 실내계획전공

Min-Ah Lee

Dep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Kun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relations among the residents' characteristics, the policy of the facility, and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ctivity areas, and to understand the elements for the lively use of activity areas in the elderly nursing facil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semi-public activity areas and the residents' management-control policy. The facilities having semi-public areas of living room type showed more flexibility in time and place and more respects for the residents. Second, the activity areas of connection type were much more used than the compartment type, especially in the facilities having more residents incapable of walking. On the other hand, the facilities having high control for the residents showed high using rate in public activity areas, and all those did not have semi-public areas or showed low using rate in there. Third, i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he using rate of activity areas, the public activity areas having compartment type in the spatial composition and hall as a form were likely to have multiple usages. On the whole, the various form of activity areas, the area per residents, openness, accessibility and centrality were having interactions each other for high using rate in activity areas. Especially, many stimulations and the furniture arrangements that were good for the residents' interactions had a function of compensation for the poor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ctivity areas. This study investigated only the using rates to understand the lively use of the space. For the future study, it is suggested that the detail using behavior of the residents should be examined to understand the influential elements.

Keywords : nursing home, activity areas, spatial use

I. 서론

2008년 7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20년 이내에 (2026년)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통계청, 2008).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출산율 저하

와 더불어 노령화 지수 및 노년부양비의 증가를 가져왔고, 만성 노인성 질환의 노인 간호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중풍, 치매 등의 질환을 가진 노인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설립을 정책적으로 증가시켜왔으며,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이후 노인요양시설의 설립증가는 지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31-C00300).

* Corresponding author: Min-Ah Lee

Tel: 063-469-4625, Fax: 063-469-4621

E-mail: leema@kunsan.ac.kr

속될 전망이다.

최근 노인요양시설 공간계획은 시설이 아닌 노인이 생활하는 주거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그 초점이 단위 거주실에서 점차 거주노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활동공간은 거주노인에게 심리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활동 장소로서 질병특성상 거주노인의 외부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노인과 직원, 방문객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활동공간은 시설 내의 홀,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비롯하여 복도, 알코브, 일광욕실 등을 말하는데, 그 기능은 다수의, 혹은 소그룹으로 형성된 노인들이 모여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을 하거나 다른 이들의 활동을 구경, 관찰하면서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2-3인이, 혹은 개인이 취미활동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된다(이민아,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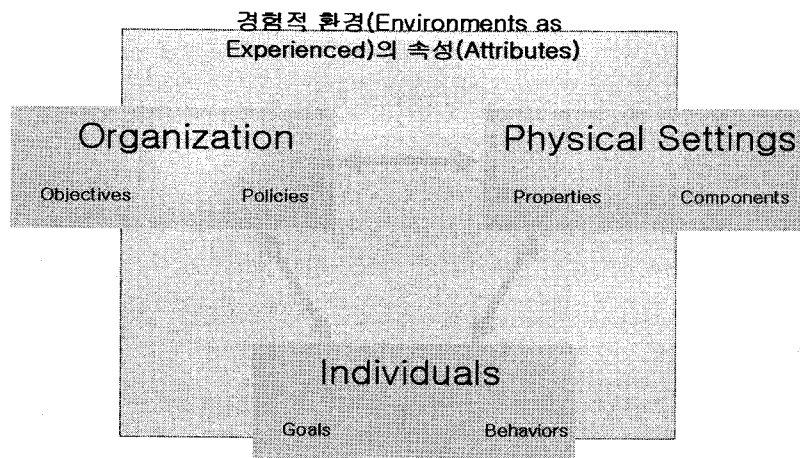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은 설계 및 디자인과 시설의 정책방향 결정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 구성, 그리고 거주노인의 모집과 입소가 시간적 차이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어 설립 시 제공된 시설 내 다양한 활동공간들이 설계자나 디자이너의 의도와 다르게 이용되거나 빈 공간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직원과 거주노인의 불만사항으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활동공간의 활발한 이용이 물리적으로 쾌적하고 다양한 용도와 형태의 공간과 같은 시설환경을 제공하는 데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거주자에 대한 정책과 거주노인의 개인적 특성이 함께 어우러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특성과 시설의 정책, 공간의 물리적 특성

을 조사하여 활동공간의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활동 공간 계획에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 및 연구모형

Weisman(1981)은 시설 거주노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특정 공간의 환경적 속성(Environmental Attributes)은 1. 정책을 운영하는 단체조직(Organization), 2. 물리적 환경특성과 그 구성요소(Physical Settings), 그리고 3. 개인 거주자의 특성 (Individuals) 등 3가지 하위요소(Subsystems)간의 교섭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그림 1). 예를 들어, “접근성(Accessibility)”이라는 속성은 어느 한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이동을 장려하는 기관의 정책(Organization)과 복도의 길이(Physical Settings), 거주자의 운동능력(Individuals)이라는 3가지 하위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그림 1).

Pinet(1995)는 요양시설에서 거주노인의 행동과 관련하여 위의 3가지 요소를 언급하였는데, 건축적 특성인 공간의 물리적 환경 특성 외에 주변의 맥락(context) 측면에서 배경이 되는 요소로서 단체조직과 거주노인의 개인적 특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단체조직이라는 것은 시설의 정책과 거주노인 당 간호사 및 전문 직원의 수, 조직화된 프로그램의 빈도 등을 포함할 수 있는데, 시설의 정책 요소로는 거주노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배려의



[그림 1] Weisman의 환경-행동 이론

여부, 거주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지역사회 및 거주자간 상호작용을 위한 지원 여부 등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적 특성이 거주노인의 공간이용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 한편, 개인 거주자의 특성으로는 크게 지적/신체적 장애, 성격특성,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이 있는데, 이는 Lawton(1986)의 노인-환경 이론에서 환경적 압력(Environmental press)에 대응하는 개인능력(Competence)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폭넓은 개인능력을 가진 거주자가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와 자기조절능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의 이용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Weisman의 환경-행동이론(Environment-Behavior Theory)을 응용하여 활동 공간 이용의 세 가지 하위요소로서 1. 노인요양시설의 정책적 특성(Organization: 거주자 관리통제특성)과 2. 단위 공간특성(Physical Settings: 활동공간의 물리적 특성), 3. 거주노인의 개인적 특성(Individuals: 거주노인의 독립적 보행 상태)을 선정하였고, 이 세 가지 요소간의 상호교섭에 의한 거주노인의 활동 공간 이용비율을 분석하여 활동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조사대상 시설은 총별로 활동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중 활동공간의 총별 구성 유형(구획, 연계, 집중, 분산)과 각 공간의 형태(홀, 독립, 일반복도, 복도확장, 거실, 알코브 등)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고, 연구자의 접근성과 시설방문답사의 허가 등을 고려하여 10개의 시설을 선정하였다.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되, 시설 내 활동공간의 이용에 있어 기반이 잡히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개원 후 6개월 이상, 최대 5년 이내(2002년 이후)인 시설로 제한하였다.

2007년 12월 각 시설의 시설장 혹은 사무국장을 통해 시설의 기본적인 특성과 거주노인의 보행특성(와상/휠체어, 보행보조, 독립)을 알아보았고, 활동 공간 이용관련 사항과 거주노인 관리통제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시설별로 직원 1명씩(사무국장, 혹은 사회복지사) 총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활동 공간 이용관련 사항으로는 활동공간별 평균 이용인원과 공간의 주용도(공식, 비공식, 다목적)를 질문하였고, 거주노인 관리통제 특성

의 조사를 위해 Smith와 Holland(1982), Pinet(1995)의 Resident Management Practices Scale을 참조하여 작성된 면접지를 이용하였다(표 1). 면접 문항은 Smith와 Holland(1982)가 정신질환시설을 대상으로 작성한 16개 문항 중 15개, 그리고 Pinet(1995)가 Nursing Home을 대상으로 하는 39문항의 Scale 중 23개가 수정 구성되었다. 최종 Scale은 총 26개 문항으로 문항 당 최대 2점에서 5점까지 주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주노인에 대한 시설의 관리통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6개 문항은 다시 그 성격에 따라 융통성, 개별화, 인간존중의 3개 범주로 구분되었는데, 융통성 범주에는 기상, 취침, 식사 목욕 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동의 선택가능성 문항이 포함되었고, 개별화는 의복, 가구, 장식 등과 같은 물품의 소유 및 개인화의 가능성, 그리고 인간존중 범주는 직원들의 거주자 케어 방식 등의 노인거주자에 대한 존중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융통성은 총 11개 문항으로 평가점수는 최소 11점에서 최대 49점까지 가능하였고, 개별화는 9문항으로 9점에서 37점, 인간존중은 7개 문항으로, 7점에서 33점까지 평가되었다.

또한, 10개 시설에 대한 현장답사와 도면분석을 통해 활동공간을 공적, 준공적, 준사적 활동공간으로 구분한 뒤 물리적 특성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적 활동공간은 층의 전체노인이 함께 모여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준공적은 거주단위의 노인이 그룹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거주단위 대상이더라도 그룹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제외하였음)이며, 준사적 활동공간은 주로 비공식적인 특성을 가지면서 노인의 개인 취미, 작업, 담소, 구경 및 관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총별 활동공간의 구성과 형태, 활동공간별 규모(전체면적, 거주노인 당 면적), 개방성(전체 활동공간둘레에 대해 복도 등의 다른 공간으로 개방된 부분의 비율측정), 접근성(노인의 개인 거주실에서 각 활동공간에 이르기까지의 통행 거리: 최단거리, 최장거리 측정), 중심성(각 활동공간과 간호사실(N.S.) 또는 주출입구(Elevator)와의 거리 중 짧은 거리), 자극요소 등이 있다.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활동공간 이용의 3가지 하위요소에 해당되는 노인의 보행상태와 활동공간별 물리적 특성, 거주자 관리통제 정책이 각각 분석되었고, 3가지 하위요소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둘째, 활동공간의 주용도 및 평균 이용비율을 알아본 뒤, 활동공간 이용과 3가지 하위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표 1〉 거주자 관리통제 Scale 선정

범주	Smith & Holland(1982)	Pinet(1995)	최종 Scale(점수)	점수범위
용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말 기상시간 -주말 취침시간 -계획된 활동 외의 외출 -숙소(침실)이용시간 -활동대기 -식사시간 외 음식/간식 -다른 공간으로의 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시간 -취침시간 -목욕 및 샤워시간 -외출의 자율성 -휴식을 위한 낮잠 -식사시간 외 음식/간식 -다른 공간으로의 출입 -메뉴선택 -전화사용 -외부인 방문시간 -방문시간의 범위 -아침식사 시간 -기상의 결정 -취침의 결정 -외출 동행인 -간식/음료 조리설비 -알콜 구매 -가사 활동 허용 -식사공간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5) -취침(5) -식사(3) -메뉴(3) -목욕(5) -휴식 및 낮잠(5) -외출(5) -다른 공간으로의 출입(5) -식사시간 외 음식/간식(5) -식사 후 행동의 자율성(5) -전화사용(3) 	11점-49점
개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복 보관 장소 -개인 의복소유 -개인 책/잡지 소유 -개인 소지품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복선택 -의복 보관 장소 -개인잠옷 -개인소지품 수납공간 -개인 책/잡지 소유 -입소 시 본인 가구 배치 -개인 가구 소유 -거주실 실내장식 -라디오/TV -문이 잠기는 단독침실 -방문객 맞이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실 실내장식(4) -의복선택(2) -개인 의복 소유(5) -의복 개별 보관 장소(5) -입소 시 본인 가구 배치(3) -본인 가구 소유(5) -개인 수납공간(3) -개인 소지품 소유(5) -라디오/TV소유(5) 	9점-37점
인간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욕 시 대기 방식 -목욕 후 대기 방식 -목욕방식 -직원과의 식사 -아침식사 시 줄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욕 및 샤워방식 -직원과의 식사 -직원과의 공식적 만남 -직원 간 노인관련 사담 -휠체어 이동 시 주의 -경보 시 대응의 신속성 -현관 잠금장치 -식사 대기 -총 식사 소요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과의 식사(5) -목욕 방식(5) -목욕 시 대기 방식(5) -목욕 후 대기 방식(5) -직원과의 공식적 만남(3) -직원 간 노인관련 사담(5) -휠체어 이동 시 주의(5) 	7점-33점

* 밑줄은 본 연구에 사용되었거나 수정 적용된 문항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요소를 알아보았다.

IV. 결과분석 및 해석

1. 조사시설의 기본 특성

조사대상 시설의 기본적인 특성을 <표 2>에 정리하였다. 지역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이 4개(B, C, D,

G), 경기도가 5개(A, E, F, H, J), 인천이 1개(I)였고, 입지에 있어서는 I와 J시설이 전원지역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도시에 위치하였다. 모든 시설이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2004년-2007년)에 개원하였고, 입소정원은 I와 J시설이 60명 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100명 이상의 시설이었으며, 이 중 정원 250명의 시설도 2개(B, D)가 있었다. 대규모 정원을 가진 B, D시설 포함 3개 시설(B, D, G)이 실비였고, 나머지는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규모는 3-4층이 대부분이었으나(7개 시설), 서울에 위치한 시설 중 3개(B, C, D)가 5층 이상이었다.

〈표 2〉 조사대상 시설의 기본적 특성

	지역	입지	개원	정원	비용	지하/지상	유니트 유형	층별인원	거주단위 별 인원
A	경기	도시	2005	100	무료	1/3	유니트연결	50	25
B	서울	도시	2005	250	실비	1/5	유니트연결	72	18-20
C	서울	도시	2006	165	무료	2/5	유니트독립	55	27
D	서울	도시	2007	250	실비	1/6	유니트연결	64	16-20
E	경기	도시	2004	100	무료	1/3	-	50	50
F	경기	도시	2004	145	무료	1/3	유니트연결	50	25
G	서울	도시	2005	100	실비	1/4	유니트독립	20/40/50	20-25
H	경기	도시	2005	100	무료	1/3	유니트연결	약 27	약 10
I	인천	전원	2004	60	무료	1/3	유니트연결	30	15
J	경기	전원	2005	60	무료	1/4	-	30	30

* 2007년 12월 기준

10개 시설 중 8개가 유니트케어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그 유형은 유니트 연결형이 대부분이었으나 C와 G시설은 유니트 독립형이었다¹⁾. 층별 거주인원은 20명에서 72명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정원이 250명으로 많은 B와 D시설의 층별 거주인원이 많았다(각각 72명, 64명). 거주단위별 인원을 보면, 유니트케어를 하지 않아 층별 인원이 거주단위별 인원과 동일한 E와 J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명 내외로 나타났다.

2. 활동공간 이용특성의 하위요소

1) 거주노인 특성

활동공간 이용특성의 하위요소 중 거주노인의 특성으로 활동공간의 이용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 사료되는 보행상태를 조사하였다(표 3). 다른 사람이나 보조기구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는 노인은 대부분 시설에서 20-30%로 나타났고, D와 I시설은 각각 60.0%와 50.0%로 나타났다. D시설은 최근 개원하여 거주노인의 홍보 및 모집 차원에서 보행에 있어 독립적인 노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외상 혹은 휠체어만으로 이동이 가능한 노인은 대부분 시설에서 50% 내외를 차지하였는데, D, F, H, I시설은 30-40%로 다른 시설에 비해 그 비율이 낮은 편이었던 반면, C, E, J시설은 65%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3〉 거주노인의 보행특성

	와상/휠체어	보행보조	독립
A	57.0	22.0	21.0
B	60.0	-	40.0
C	65.0	-	35.0
D	40.0	-	60.0
E	67.0	22.0	11.0
F	40.0	40.0	20.0
G	55.0	22.0	23.0
H	30.0	50.0	20.0
I	30.0	20.0	50.0
J	66.7	-	33.3

* 2007년 12월 기준

2) 활동공간의 물리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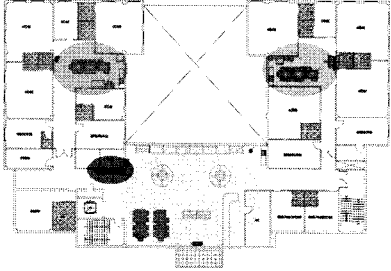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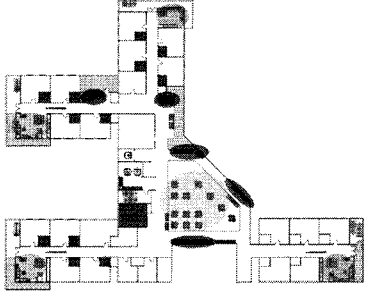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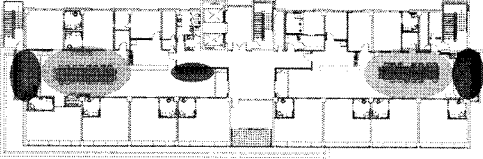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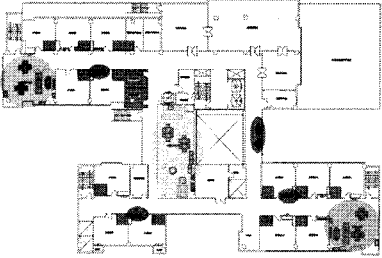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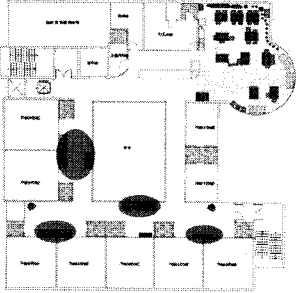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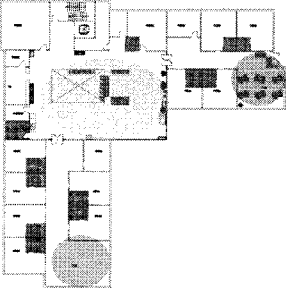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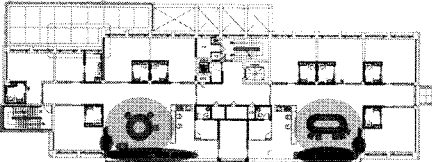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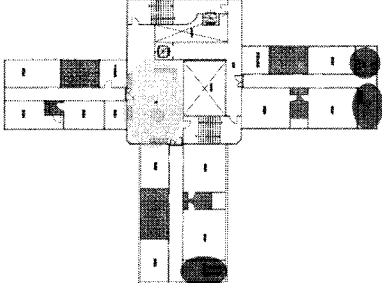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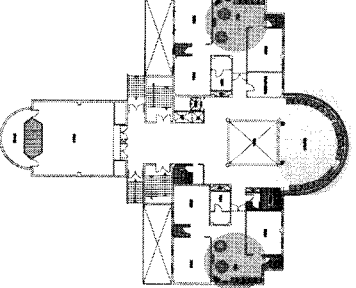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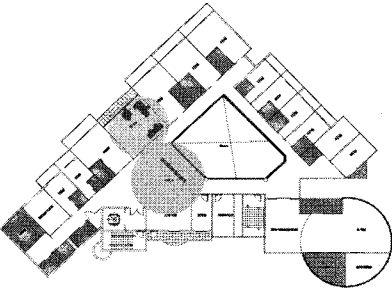
각 시설에서 조사된 활동공간을 <표 4>에 나타냈다. 활동공간의 구성은 8개 시설 중 4개(A, F, H, I시설)가 층 내의 모든 활동공간이 물리적인 거리를 두거나 벽 등으로 구분된 구획형이고, 3개(B, D, E)가 여러 개의 활동공간이 시설 전체에 분산된 분산형이었으며, 2개(C, J 시설)가 2-3개의 활동공간이 서로 인접한 곳에 있는 연계형, 1개(G시설)가 모든 활동공간이 층의 일정부분에 집중된 집중형으로 나타났다.

(1) 공적 활동공간

공적 활동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표 5>에 나타냈다. C와 G시설은 유니트 독립형으로서 공적 활동공간을 가

1) 유니트연결형 : 대그룹 공간을 중심으로 소규모 활동공간이 있는 거주단위가 연결된 유형
 유니트독립형 : 대그룹 공간 없이 각 거주단위가 개별적인 활동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
 (이민아, 2008)

〈표 4〉 시설별 각 활동공간의 위치 및 구성

A시설(구획형)	B시설(분산형)
	
C시설(연계형)	D시설(분산형)
	
E시설(분산형)	F시설(구획형)
	
G시설(집중형)	H시설(구획형)
	
I시설(구획형)	J시설(연계형)
	

● : 공적영역, ● : 준공적영역, ● : 준사적영역

〈표 5〉 공적 활동공간의 물리적 특성

		A	B	D	E	F	H	I	J
형태		홀	홀	복도확장	독립	홀	홀	복도확장	혼합
면적 (m)	전체	185	189	107.5	109	165	74	77	87.8
	1인당	3.7	2.6	1.7	2.2	3.3	2.7	2.5	2.9
개방성(%)		8.7	100.0	50.0	13.5	50.0	17.6	18.2	38.9
접근성(m)		20.6~27.3	13.5~41.7	5.5~34.1	9.3~35.7	2.1~20.2	2~23.5	18.5~19	1~17.4
중심성(m)		0	4.3	9.1	0	5.0	0	9.8	0
자극 요소	개구부	2벽 부분창	4면 개방	2면 개방, 2벽 전면창	1벽 전면창	코너 전면창	-	1벽 전면창	1벽 전면창
	디스플레이	화분, 모빌, 게시판, 그림	화분	액자	액자, 화분	화단, 화분, 그림	-	화분, 그림작품	화분, 안내판, 창호문, 풍선
	영상/음향	TV, 앰프, 피아노	TV	-	TV, 앰프	TV, 앰프	TV	-	TV
	편의설비	싱크, 냉온수기	주방	주방	주방	-	-	-	주방
	취미설비	잡지대	-	책꽂이, 새장	-	운동계단	-	-	-
	가구배치	-소파 일렬/ 원형배치, 4인 테이블 4개 일렬배치	-4인 테이블 13개 분산배치, -주변에 소파/벤치 일렬배치	-6인 테이블 2개 분산배치, -소파 일렬/마주보는 배치, -전통가구	-4인 테이블 11개 분산배치, -3인 소파 3개 일렬배치	-평상, 소파 γ/α자배치	-소파 일렬/ 원형배치	-소파 일렬배치	-4인 테이블 5개 분산배치

지고 있지 않았고, 나머지 8개 시설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알아보았다. 8개 시설 중 4개(A, B, F, H)가 홀 형태였는데, 이 중 3개(A, F, H)의 층 내 활동공간 구성이 구획형인 것이 특징이었다.

전체면적으로 보면 홀 형태인 A, B, F시설이 165-189m²로 넓게 나타났고, 이 중 활동공간 구성이 구획형인 A와 F시설은 1인당 면적도 3.0m² 이상으로 넓었다. 반면, 복도확장과 독립 형태의 D, E시설 1인당 면적은 1.7-2.2m²로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고, 두 시설 모두 활동공간의 구성이 분산형인 것이 특징이었다. 개방성은 최소 8.7%-최대 100.0%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거주실에서 활동공간까지의 접근성은 최소 1m에서 최대 41.7m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시설별로 최소와 최대거리는 약 15-20m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분산형 시설(B, D, E)은 최소와 최대거리의 차이가 25m 이상이었으며, 최대거리가 모두 30m 이상으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A와 I시설은 거주실에서의 접근성이 최소와 최대 간에 큰 차이 없이 20m 내외를 나타냈다. 중심성에서 활동공간과 간호사실(N.S.) 혹은 엘리베이터까지의 거리는 0m에서 9.8m로 나타났는데, 복도확장 형태(D, I)의 중심성이 9m 이상으로 다소 떨어졌다. 자극요소는 개구부와 디스플레이, 영상/음향시설, 편

의설비, 취미설비, 가구배치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홀 형태로 74m²의 좁은 활동공간을 가진 H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1개 벽 이상에 창을 가지고 있었고, 화분과 액자, TV, 테이블과 의자, 소파 등이 공통적인 요소로 배치되고 있었다. B, D, E, J시설은 주방을 가지고 있었고, A, D, F시설은 취미설비로서 잡지대와 책꽂이, 새장, 운동계단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구배치에 있어서 B, D, E, J시설이 테이블을 일렬로 배치하지 않고 분산배치하고 있었으며, D와 F시설의 소파는 상호작용에 좋은 γ자, α자, 혹은 마주보는 배치를 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공적 활동공간은 F시설의 물리적 특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형 시설인 B, D, E시설이 1인당 면적이나 접근성 등에서 열악하였으나 양질의 자극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준공적 활동공간

준공적 활동공간이 없는 E, J시설과 활동공간이 있으나 그룹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H시설은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시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표 6). 먼저 시설별 준공적 활동공간의 형태를 살펴보면 독립 형태가 3개(B, D, F)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거실 형태(A, I), 넓은복도(C)와 복도확장(G) 형태의 순으로 공적

(표 6) 준공적 활동공간의 물리적 특성

		A	B	C	D	F	G	I
형태		거실	독립	넓은복도	독립	독립	복도확장	거실
면적 (m)	전체	23.0	38.6	62.6	54.5	46.0	51.4	23.7
	1인당	0.9	1.9	2.3	2.7	1.8	2.6	1.6
개방성(%)		31.5	21.1	92.8	35.6	19.6	28.7	41.6
접근성(m)		0~6.4	2.5~15.2	0~9.0	3~12.3	2.7~11.4	2.6~6.3	0~1.8
중심성(m)		24.1	22.1	5.4	58.5	31.9	0	0
자극 요소	개구부	1벽 부분창 1면 개방	2벽 창	복도	2벽 부분창	1벽 부분창 코너전면창	1면 개방 1벽 전면창	2면코너 부분창
	디스플레이	안내판, 화분	화분	모빌, 화분, 게시판, 작품	액자	액자, 모빌, 화분	액자, 꽃병, 화분, 풍선	모빌, 화분, 액자, 창호문, 꾸밈판
	영상/음향	TV	TV	TV	TV, 오디오	TV	TV	TV
	편의설비	주방, 칫솔, 치약, 전화	주방	-	-	주방	주방, 원격제어	-
	취미설비	-	-	-	-	-	잡지대	-
	가구배치	4인테이블 3개 일렬배치	6인테이블, 소파 L자배치, 수납장	4인테이블 8개, 등받이 없는 소파 7개 일렬배치	4인테이블 분산 배치, 3인용소파, 전통가구	4인테이블 분산배치	원형 테이블, 소파일렬배치	소파일렬배치, 좌식원형테이블 2개

활동공간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체면적은 공적 활동공간이 없는 C시설이 62.6㎡로 가장 넓었고, 1인당 면적은 D와 G시설이 각각 2.7, 2.6㎡로 가장 큰 반면, 넓은 공적 활동공간을 가졌던 A시설의 전체면적과 1인당 면적이 각각 23.0㎡와 0.9㎡로 작았는데, A시설과 같은 거실 형태의 I시설도 각각 23.7㎡와 1.6㎡로 다른 시설에 비해 준공적 활동공간의 면적이 좁았다. 개방성은 4개 시설(A, D, G, I)이 30-40% 내외를 보였고, 최소 19.6%(F시설)에서 최대 92.8%(C시설)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거주실과의 접근성은 최소 0m에서 최대 15m정도로 나타났는데 거주단위의 한쪽에 고립된 독립형태를 가진 준공적 활동공간(B, D, F)으로의 접근성이 모두 10m 이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접근성이 낮았다. 중심성은 개방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거주단위 별로 간호사 대기실의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로서 대체적으로 독립형태의 중심성이 모두 20m 이상으로 좋지 않았다. 준공적 활동공간에서의 자극요소는 거주노인의 자연스러운 소그룹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었는데, 대부분 한 개 벽 이상의 부분 창, 혹은 전면 창을 가지고 있었고, 화분이나 액자 등의 디스플레이 요소와 TV,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주방을 보유하여 식사공간으로

겸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A, B, F, G), 입식 테이블 외에 소파를 배치하여 공간영역을 분할한 경우도 있었다(B, D, G). 거실 형태의 A시설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입식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B시설의 경우 유일하게 소파가 L자로 배치되었으며, D와 F시설은 다른 시설들이 테이블을 일렬로 배치하여 획일적인 분위기를 보인 것과 달리 4인용 테이블이 분산배치 된 것이 특징이었다.

전체적으로 유니트 독립형으로서 공적 활동공간이 없었던 G시설의 준공적 활동공간이 면적, 개방성, 접근성, 중심성 및 자극요소에서 양질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냈다. 준공적 활동공간은 형태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독립형태의 활동공간을 가진 B, D, F시설은 개방성과 접근성, 중심성에서 모두 열악한 물리적 특성을 보인 반면, 자극요소에서 상호작용에 유리한 가구배치를 하고 있었다.

(3) 준사적 활동공간

준사적 활동공간의 경우 공적이나 준공적 활동공간의 분석에 필수적인 규모, 개방성 및 중심성 등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적/준공적의 일부분에 해당될 경우 개방성이나 규모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제외하였고 그 특성을 주로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10개 시설 중 7개 시설(A, B, C, D, E, G, H)이 구경, 휴식과 대화,

〈표 7〉 준사적 활동공간의 물리적 특성

	위치	형태	접근성	자극요소
A	공적 주변이자 거주단위 입구	일반복도	2개 거주단위 중 한쪽 거주단위에서만 접근이 용이함	의자 6개 일렬배치
B	① 공적 주변 ② 거주단위 입구	① 일반복도 ② 복도확장	① 각 거주단위에서의 접근이 용이함 ② 2개 거주단위의 입구에 자리잡고 있음	① 의자 일렬배치, 전면창, 화분 ② 소파 1자 배치, 테이블 6인용 배치, 운동계단
C	① 거주단위 입구 ② 준공적 주변 ③ 거주단위 안쪽	① 일반복도 ② 일반복도 ③ 알코브	다양한 공간구성으로 접근이 용이함	①② 의자 일렬배치 ③ 선반, 1자형 소파배치, 전면창, 책, 화분
D	① 시설 중심통로 ② 각 거주단위	① 일반복도 ② 알코브	① 거주단위와 상당한 거리가 있음 ② 접근이 용이함	① 2인용 테이블 2개 배치, 전면창, 층에 따라 벤치, 평상, 미니정원, 전동소품 및 가구 등 배치 ② 붙박이 벤치, 세면대
E	거주실 앞	일반복도	접근이 용이함	6인용 소파/의자 일렬배치, 혹은 마주보는 배치, TV, 세면대, 화분
G	준공적 주변	알코브	준공적영역을 통과해야 접근 가능함	10-15인 소파 1자 배치
H	거주단위 안쪽	독립	고립되어 있는 공간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6인용테이블, 혹은 장소에 따라 벤치, 좌식테이블, 운동설비, 냉온수기, 전동소품, 병풍, 화분

개인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준사적 성격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표 7). 주로 공적/준공적 활동공간 주변이나(A, B, C, G) 거주단위/거주실 입구(A, B, C, E), 혹은 거주단위 안쪽(C, H)에 위치하고 있었다. 5개 시설(A, B, C, D, E)이 일반복도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알코브 형태가 3개(C, D, G)였고, G시설은 복도확장, H시설의 경우 독립형태의 준사적 활동공간을 보유하고 있었다.

접근성 측면에서 A시설의 준사적 활동공간은 총 내 2개 거주단위 중 한 개의 거주단위 입구에만 설치되어 다른 쪽 거주단위 노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고, G시설은 준공적 공간의 안쪽에 위치하여 준사적 활동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의문시 되었다. 독립형태를 가진 H시설은 거주단위 가장 안쪽에 고립되어 있었고, D시설의 중앙통로에 배치된 준사적 활동공간도 각 거주단위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주 이용통로와도 떨어져 있어 의도적인 이용 외에는 접근이 어려운 공간이었다. 한편, B시설은 공적 활동공간 주변을 둘러 의자가 배치되어 각 거주단위에서 접근이 용이하였으며, C시설은 각 준사적 활동공간이 거주단위 입구에서부터 준공적 활동공간 주변을 거쳐 거주단위 안쪽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노인들이 거주실에서 거리와 용도를 고려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 공적/준공적 활동공간 주변에는 의자나 소파의 일렬배치가 많았고, 각 거주단위 쪽에는 1자형 소파배치(B, C)나 붙박이 벤치도 있었다. 특히, D시설은 시설 중심부의 복도에 준사적 활동공간을 조성하였는데, 각 층별로 테마를 달리하여 미니정원과 벤치, 혹은 전동소품과 평상, 대화를 위한 2인용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있

었다. 독립형인 H시설도 거주단위별로 요소를 다양하게 하여 6인용 테이블, 혹은 벤치, 좌식테이블 등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

3) 시설의 거주자 관리통제특성

시설의 거주자에 대한 관리통제특성을 융통성, 개별화, 인간존중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표 8). 먼저, 융통성 범주의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식사시간과 메뉴선택, 목욕시간이 거주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었고(각각 3점 중 2.9, 2.5, 5점 중 4.6), 거주자 통제가 낮은 항목은 휴식 및 낮잠시간의 선택, 외출, 공간출입의 통제(5점 중 1.9, 2.3, 2.5)로 나타났다. 10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서 식사시간과 메뉴는 거주노인 관리와 음식재료 준비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리고 노인의 질병과 의사표현의 제한으로 인해 획일적인 수밖에 없고, 특히 목욕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일주일에 1회 혹은 2회 정도로 해당요일에 일률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설측의 입장이다. 융통성 범주의 총점 평균은 31.7점으로 최소 27점에서 최대 37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시설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비교적 융통성이 높게 나타난 I와 A시설(각각 총점 27점, 28점)을 보면, I시설의 경우 기상, 취침, 식사, 목욕, 간식과 같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생활행동에 있어서 통제가 높은 반면, 메뉴선택과 식사 후의 개인행동, 외출과 전화사용, 공간의 출입, 휴식 및 낮잠에 있어서 높은 융통성을 보였고, A시설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융통성을 조금씩 부

〈표 8〉 시설별 거주자 관리통제 점수

범주	항목	평균	A	H	I	G	C	B	D	E	J	F
유통성	기상	3.7	2	4	4	4	3	4	4	4	4	4
	취침	3.4	3	4	4	3	4	4	4	3	1	4
	식사	2.9	3	3	3	2	3	3	3	3	3	3
	간식	3.2	3	3	4	2	1	3	3	3	5	5
	식후행동	2.8	3	2	1	3	4	3	3	4	1	4
	메뉴선택	2.5	2	3	1	3	3	3	3	3	2	2
	외출	2.3	3	2	2	2	1	1	2	4	3	3
	전화사용	1.9	1	2	2	2	2	2	2	1	3	2
	공간출입	2.5	3	2	1	2	1	4	1	3	4	4
	휴식낮잠	1.9	2	1	1	2	3	1	3	3	2	1
	목욕	4.6	3	4	4	5	5	5	5	5	5	5
총점	31.7	28	30	27	30	30	33	33	36	33	37	
개별화	의복선택	1.4	1	1	1	1	1	2	1	2	2	2
	개인 옷 소유	1.9	2	2	1	1	1	5	1	4	1	1
	의복보관	1.6	2	2	1	1	2	1	1	3	1	2
	본인가구	2.6	3	3	3	2	3	2	3	1	3	3
	가구소유	4.7	5	5	5	4	5	4	5	4	5	5
	개인수납	1.1	1	1	1	1	1	1	1	2	1	1
	소지품	2.1	1	2	3	1	1	1	1	4	3	4
	살내장식	3.6	4	4	4	3	4	3	3	3	4	4
	라디오/TV	3.4	1	1	5	4	4	4	4	2	5	4
총점	22.4	20	21	24	18	22	23	20	25	25	26	
인간존중	직원식사	4.2	5	3	5	5	5	1	3	5	5	5
	목욕방식	3.6	1	1	1	5	5	5	3	5	5	5
	목욕대기	2.5	1	2	1	2	2	3	2	3	4	5
	목욕후대기	1.9	1	2	1	2	1	3	2	2	1	4
	직원만남	1.8	3	1	3	1	1	1	3	1	3	1
	사담	2.7	1	1	1	5	1	1	5	3	4	5
	이동시 주의	1.7	1	1	1	1	3	1	5	1	2	1
	총점	18.4	13	11	13	21	18	15	23	20	24	26
종합	72.5	61	62	64	69	70	71	76	81	82	89	

* 점수가 높을수록 거주자에 대한 시설의 통제가 높은 경향임

여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물품의 개별화에서는 입소 시 개인가구를 들여오는 것과 본인가구의 소유, 개인 거주실의 살내장식에 대한 통제가 높았는데(각각 3점 중 2.6점, 5점 중 4.7점, 4점 중 3.6점), 다인실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요양시설의 여건 상 개인가구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입소노인의 질병특성 상 살내장식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설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소유의 가구가 노인에게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크기가 작은 가구는 들여오는 것을 허용하고, 시설에 일률적으로 설치되는 가구대신 본인의 가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살내장

식은 감각의 자극을 위한 치료의 한 방편으로 의견 표시가 어렵다 하더라도 거주실, 혹은 시설 내 공간의 살내장식을 거주노인과 함께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한편, 개인 의복의 소유, 의복보관의 개별화, 물품의 개인수납, 개인 소지품소유(각각 5점 중 1.9점, 1.6점, 3점 중 1.1점, 5점 중 2.1점)에서 비교적 개별화를 보이고 있었으며, 시설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유통성 범주에서 통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E, J, F시설이 개별화 범주에서도 여전히 통제가 높았고(각각 25점, 25점, 26점), 유통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I시설은 개별화에서 24점으로 전체평균(22.4점) 이상의 통제를 보였다. G시설이 18점으로 개별화 범주에서 시설의 통제가 가장 낮았

고, A와 D시설이 2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G와 D시설은 모두 실비시설인 것이 특징이다. G시설은 의복관련 3가지 문항과 물품 소유 및 수납방식에서 확실한 개별화를 지향하고 있었고, 다른 시설에서 통제가 높았던 개인 가구의 소유에 있어서도 크기가 작은 가구는 허용을 하고 있었다.

개인존중의 범주에서 대부분 직원과의 식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5점 중 4.2점), 목욕 시/목욕 후 대기여부와 이동 시 주의 여부에서 존중정도가 높았다(각각 5점 중 1.9, 2.5, 1.7점). 전체적으로 최소 11점에서 최대 26점까지로 융통성과 개별화 범주에 비해 시설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융통성과 개별화 범주에서 평균정도의 거주자통제를 보이던 H시설이 11점으로 거주노인 존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융통성 범주에서 통제가 가장 낮았던 A와 I시설이 13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이 다른 시설과 구별되는 사항은 목욕 시 직원이 한 번에 여러 명이 아닌 1명의 노인을 보조하고 있으며, 다른 직원과 노인들의 사적인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이었다. 그 밖에 B시설은 거주노인이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종합 점수를 비교해 보면, 3개의 범주에서 고르게 낮은 통제점수를 보인 A시설을 비롯하여, H, I시설이 각각 61, 62, 64점으로 시설의 통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은 모두 인간존중 범주에서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였고, 모두 구획형 활동공간구성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E와 F, J시설은 모든 범주에서 높은 통제를 보였으며 이 중 E, J시설은 비유니트케어 시설이었다. 실비시설인 G와 D시설은 개별화 범주에서 통제가 낮았으나 인간존중에서 다소 통제가 높았으며, B시설은 다른 범주에 비해 인간존중에 있어서 낮은 통제를 나타냈다.

4) 3가지 하위요소간의 관계

거주노인의 보행특성은 시설의 거주자 관리통제나 활동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었다. 거주자 관리통제와 활동공간의 물리적 특성간의 관계는 주로 준공적 활동공간에서 나타났는데, 융통성과 인간존중에서 거주자에 대한 관리통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A와 I시설의 준공적 활동공간의 형태가 모두 거실 형태였고 1인당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반면(각각 0.9, 1.6㎡), 인간존중 측면에서 통제가 높았던 D와 F시설이 모두 독립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범주와 달리 개별화 범주에서 매

우 낮은 통제를 보인 D와 G시설은 모두 실비시설로서 공적 활동공간이 없거나 매우 좁은 면적(1.7㎡)을 가진 대신 준공적 활동공간의 1인당 면적이 다른 공간에 비해 월등하게 넓은 특성이 있었다(각각 2.7, 2.6㎡). 즉, 시설의 융통성과 인간존중은 집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유리한 거실 형태의 준공적 활동공간에서 나타나고, 공적 활동공간에 관계없이 넓은 준공적 활동공간이 있을 경우 거주노인의 개별화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3. 활동공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요소 분석

1) 활동공간별 이용

각 활동공간의 주용도를 공식, 비공식, 다목적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고, 평균 이용인원에 대한 직원의 답변을 기초로 이를 시설의 층별, 혹은 거주단위별 노인 수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여 거주노인의 활동공간 이용비율을 조사하였다(표 9).

공적 활동공간은 공간을 보유한 8개 시설 중 5개가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분산형인 B, D, E시설은 프로그램 활동이나 식사, 시설 행사에 이용하는 등 공식적인 성격이 강했다. 평균 이용비율은 시설별로 6.3%에서 40.0%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F시설이 40.0%로 가장 높았고, 공식적 성격이 강했던 시설의 평균 이용비율이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B시설 6.9%, D시설 6.3%). 최대 이용비율은 대부분 시설에서 50-60%로 나타났다는데, 시설전체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I시설이 100%로 나타났고, 공식적 성격을 가진 E시설의 최대 이용비율이 24.0%로 가장 낮았다.

준공적 활동공간을 보유한 7개 시설 중 A와 F시설이 식사나 프로그램 정도만을 수행하는 등 공식적인 성격으로 이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목적 용도를 가지고 있었다. 평균 이용비율은 C와 I시설이 50.0%를 넘었는데, C시설은 공적 활동공간이 없어 준공적 활동공간이 거주단위 내 노인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공식적인 성격을 띤 A와 F시설의 이용비율이 2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F시설은 공적 활동공간의 평균 이용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과 대조되었다.

준사적 활동공간을 보유한 7개 시설의 주용도는 대부분 구경과 휴식이었고, 개인활동(B, C, H) 혹은 대화(C, D, E, G)의 기능을 가진 시설도 있었다. 공적 활동공간이 없는 C시설의 준사적 활동공간 용도가 구경과 휴식,

〈표 9〉 시설별 활동공간 이용 및 주 용도

	공적 활동공간			준공적 활동공간		준사적 활동공간	
	이용비율(%)		주용도	이용비율(%)	주용도	이용*	주용도
	평균	최대					
A	16.0	60.0	다목적	16.0	공식	×	구경, 휴식
B	6.9	55.6	공식 ²⁾	35.0	다목적	○	구경, 휴식, 개인활동
C	-			53.6	다목적	○	구경, 휴식, 개인활동, 대화
D	6.3	39.1	공식	35.0	다목적	○	구경, 휴식, 대화
E	18.0	24.0	공식	-		○	구경, 휴식, 대화
F	40.0	62.0	다목적	15.0	공식		-
G	-			30.0	다목적	○	구경, 휴식, 대화
H	18.5	55.6	다목적	-		×	휴식, 개인활동
I	23.3	100.0	다목적	53.3	다목적		-
J	30.0	66.7	다목적	-			-

* 준사적 활동공간은 이용정도를 이용이 많음(○)과 적음 혹은 없음(×)으로 구분하였음

개인 활동 및 대화의 기능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공적, 준공적 활동공간의 평균 이용비율이 20% 미만인 A 시설과 준공적 활동공간이 없었던 H시설의 준사적 활동공간의 이용이 드물었다. 마찬가지로 준공적 활동공간이 없었던 E시설은 준사적 활동공간의 이용이 활발하였는데, 이는 공적 활동공간의 주 용도가 공식적이어서 거주노인의 자유로운 휴식과 상호작용이 준사적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2) 거주노인 특성 및 거주자 관리통제와 활동공간이용

와상이나 휠체어 이용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시설(C, E, J)의 와상/휠체어 비율은 각각 65.0%, 67.0%, 66.7%) 중 연계형 공간구성을 가진 C, J시설의 활동공간은 이용비율이 높았던 반면, 구획형의 E시설은 거주실 앞 준사적 활동공간의 이용만 활발했을 뿐 거리가 멀고 한쪽에 고립되어 있는 공적 활동공간의 이용이 드물었고 주로 공식적인 용도로만 사용되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어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중증 질환 노인의 거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들의 유일한 사회적 행동 장소인 활동공간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각 활동공간들이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구획된 구획형의 공간 구성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설별 거주자 관리통제와 활동공간 이용비율간의 관계는 특별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거주자

에 대한 관리 통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F와 J시설의 공적 활동공간 이용이 평균 30% 이상으로 많았고, 이들은 모두 준공적 활동공간이 없거나 이용이 저조한 것이 특징이었다. 즉, 공적 활동공간의 높은 이용비율과 준공적 활동공간의 낮은 비율은 거주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리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3) 활동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공간이용

공적 활동공간에서 활동공간의 형태가 홀인 경우 다목적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었다(A, F, H시설). B, D와 같이 대규모의 정원(250명), 한 층에 4개의 거주단위를 가진 시설의 경우 접근성과 중심성이 떨어져 공적 활동공간의 성격이 공식성을 띠었고 높은 개방성(각각 100.0%, 50.0%)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용비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대규모 시설의 공적 활동공간은 적절한 접근성과 중심성을 유지하면서 지나치게 넓은 면적을 갖지 않도록 하되 다양한 성격의 활동공간을 분산배치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활동공간의 1인당 면적이 3㎡내외로 충분하고 접근성과 중심성이 좋으며 자극요소가 많을수록, 특히, 가구배치의 형태가 분산배치, 혹은 ㄱ자, ㄷ자 배치일수록 평균 이용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었다(F, J시설). A시설의 많은 자극요소는 취약한 접근성(최소 20.6m에서 최대 27.3m)이나 개방성(8.7%)을 보완하여 이용비율(최대 60%)을 상승시키고 공간의 다목적 사

2) 공식적: 프로그램 활동, 식사, 각종 행사, 생일잔치, 공연 등
비공식적: 담화, 개인취미, TV, 구경, 관찰, 수면 등
다목적: 공식적 활동과 비공식적 활동이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 짐

용을 활성화하는 요소로 보인다.

준공적 활동공간의 이용은 공간의 형태, 1인당 면적, 접근성, 자극요소 등이 상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공간의 용도가 공식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A와 F시설의 평균 이용비율이 특히 낮았는데, A시설은 높은 이용비율을 보인 I시설(53.3%)과 같은 거실 형태지만 1㎡가 안 되는 좁은 1인당 면적(0.9㎡), 낮은 중심성과 혼잡한 입식형태의 가구배치로 이용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며 (16.0%), F시설은 독립형태의 불리한 공간형태와 함께, 낮은 개방성과 접근성, 중심성에 의해 낮은 이용비율을 보였다고 사료된다(15.0%). 높은 이용비율을 보인 C와 I 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 공통적으로 높은 개방성과 접근성, 중심성이 특징이었다.

준사적 활동공간은 공적, 준공적 활동공간의 이용을 보조하거나, 개인의 취미활동과 휴식, 2-3인의 담화를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보았을 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요소는 C시설과 같은 다양한 공간구성, D, E시설과 같이 각 거주단위나 거주실 바로 앞에 위치하는 접근성, B시설과 같이 거주단위의 입구에 위치하여 공적공간의 구경/관찰을 용이하도록 하되 그자 소파배치나 테이블 등 가구배치에 신경을 써서 개인 활동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의 자기조절(self-control)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H시설이 가지고 있는 고립된 형태의 준사적 활동공간은 개인 활동을 보조하는 충분한 설비와 가구의 배치가 전제되어야 하고,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되지 않도록 각 거주단위 안쪽보다는 거주실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하되 그 장소성과 영역성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개인적 특성인 보행상태, 활동공간의 물리적 특성요소, 그리고 거주자에 대한 관리통제를 조사하여 공간이용과의 관계를 분석한 뒤, 궁극적으로 활동공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일반적인 질병특성을 볼 때, 시설의 관리통제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되었으나, 전체적으로 활동공간의 구성과 형태, 물리적 특성 자체가 공간이용과 더 많은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활동공간 이용의 3가지 하위요소간 관계에서,

준공적 활동공간의 형태가 거실이며 1인당 면적이 비교적 작은 시설이 거주자 통제정책 중 융통성과 인간존중 범주가 우수하였고, 독립형태일 경우 거주자 통제가 높았다. 거주노인의 개별화를 보장하는 시설은 준공적 활동공간의 1인당 면적이 다른 공간에 비해 월등하게 넓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로 준공적 활동공간의 특성과 거주자 관리통제의 정도가 관련이 있었다.

둘째, 거주노인의 보행특성요소와 활동공간의 이용과의 관계에서 외상이나 휠체어 이용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시설 중 연계형 활동공간을 가진 시설은 이용이 활발했던 반면, 구획형 시설은 거주실 앞 준사적 활동공간의 이용만 활발했을 뿐, 거리가 멀고 고립되어 있는 공적 활동공간의 이용은 거의 없었다. 시설의 거주자 관리통제와 활동공간 이용의 관계에서, 거주자 통제가 높은 시설일 수록 공적 활동공간 이용이 많았고, 이들은 모두 준공적 활동공간이 없거나 이용이 저조한 것이 특징이었다.

셋째, 활동공간의 물리적 특성요소와 이용과의 관계에서, 공적 활동공간은 그 형태가 홀인 경우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며, 활동공간의 면적이 충분하고 중심성과 접근성이 좋으며 양질의 자극요소가 많을수록 이용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였다. 특히 많은 자극요소는 취약한 물리적 특성을 보완하여 이용비율을 상승시키고 공간의 다목적 사용을 활성화하는 요소로 보인다. 준공적 활동공간은 각각의 물리적 특성, 즉 공간의 형태와 1인당 면적, 접근성, 중심성, 자극요소 등이 상호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다른 시설에 비해 높은 개방성과 접근성, 중심성을 가진 시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비율을 보였다. 준사적 활동공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요소는 다양한 공간구성과 접근성, 구경 및 관찰의 용이성, 개인 활동과 휴식이 가능한 소파와 테이블 등의 가구배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시설의 정원이 대규모이고 층별 거주인원이 많은 경우, 활동공간은 다양하게 분산시키고, 공적 활동공간은 시설의 중심에 위치시키되 접근성과 다양한 자극요소를 고려한다. 외상이나 휠체어 노인이 많은 시설의 활동공간들은 집중 혹은 연계하여 노인의 이동이 잦아지지 않도록 하고, 거주노인의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공적 활동공간의 1인당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공적 활동공간이 다목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1인당 면적이 넓고 중심성이 좋은 홀 형태가 유리하고, 전체적으로 활동공간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공간과 개방성 및

접근성, 중심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물리적 특성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자극요소와 상호작용에 유리한 가구를 배치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활동공간의 이용은 거주노인의 공간점유 측면에서의 이용비율이 분석되었고, 공간의 이용방식이나 노인의 구체적인 행동은 파악되지 않은 제한이 있다. 우선적으로 활동공간 이용의 기본전제인 공간의 점유를 조사하여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공간의 물리적 특성, 시설의 관리통제와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활동공간에서의 구체적 이용행동과 그 영향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심층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어 :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 공간이용

참 고 문 헌

- 이민아. (2008).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의 구성유형과 형태별 위계적 특성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95-209.
- 통계청. (2008). 2008 고령자 통계.
- Pinet, C. (1995). *Nursing Home Desig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 Lawto, M. P. (1986). *Environment and Aging*. New York: Center for the study of Aging, 10-18.
- Smith, M. K., & Holland, T. P. (1982). Measurement of institutional resident management practice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6(1), 17-30.
- Weisman, G. (1981). Modeling environment-behavior systems: A brief note. *Journal of Man-Environment Relations*, 1(2), 32-41.

접 수 일 : 2009. 06. 05.
수정완료일 : 2009. 07. 14.
계재확정일 : 2009. 07. 14.